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한 도서관 적용 방안 연구*

- 경기도교육청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Application Case Analysis of Human Book Programs to the Library: Focused on the Case of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임 성 관 (Seong-Gwan Lim)**

조 미 아 (Mi-ah Cho)***

초 록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한 ‘사람 책’ 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하여, 도서관에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람 책’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된 ‘사람 책’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참여 독자들은 ‘사람 책’ 프로그램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해하면서 본 프로그램이 지속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사람 책’들과의 만남, 그들과의 대화 시간이 확대되기를 기대하는 것도 파악할 수 있었다. 이에 근거하여 도서관에서의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도서관에서의 ‘사람 책’ 프로그램 계획과 운영에 도움을 줄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t human book programs operated by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and from this analysis, propose systematic and efficient ways to operate human book programs in libraries. In order to accomplish these objectives, we analyzed the case studies of the human book programs run by the Gy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from 2015 to 2017. As a result, participating readers were shown to be satisfied with the human book program overall and wanted to continue the program respectively. I personally found that I was able to meet with people involved with human books in various fields and could expand the time of conversation with them. Results of these conversations further suggest the positive feasibility of running a human book program in a library.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help in the planning and operation of human book programs in any library.

키워드: 사람 책, 휴먼 라이브러리, 리빙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계획, 도서관 행사

Human Book, Human Library, Living Library, Program Planning, Library Events

* 이 논문은 2017년 경기도교육청의 연구 과제로 실시한 ‘사람 책을 활용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한 보고서의 일부를 활용하여 작성한 것임.

** 휴독서치료연구소 소장,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사서교육전공 강사(harin75@hanmail.net) (제1저자)

*** 경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miah100@naver.com)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8년 2월 19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3월 9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3월 14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1): 345-368,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1.345]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현대 사회를 4차 산업혁명시대라고 한다.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반의 만물초지능 혁명으로써, 사람과 사물, 공간을 초연결, 초지능화하여 산업구조와 사회 시스템에 혁신을 가져오는 것에 기본 초점을 두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단순히 미디어를 잘 다루고 활용하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넘어 다시 연결을 통해 통합을 꾀하는 시대로 회귀하는 변혁의 기점이라고 할 수 있다. 시대의 변화는 각 개인은 물론이고 기업이나 공공기관에 이르기까지 적응을 통한 생존이라는 과제를 남긴다. 그러므로 예측을 통해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최근 기업들은 생존을 위해 업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협력형 경쟁 체제로의 변화를 가하고 있다.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개인들도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생존해 내기 위한 변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뿌리 깊게 자리한 혈연이나 지연, 학연을 넘어 네트워크지수(Network Quotient, 공존지수라고도 함)를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다.

도서관은 다양한 정보 자원을 수집·정리하고 보존하여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스마트폰 등 여러 가지 정보기술 환경의 발전이 가속화됨에 따라 직접 도서관을 방문하고 자료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3년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마틴 스쿨의 칼 베네딕트 프레이와 마이클 오스번 교수가 발표한 보고서

‘고용의 미래(The Future of Employment)’에서는 언급된 바와 같이 사서는 향후 사라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직업군이다(저자 2013, 64). 그러므로 도서관 관리자들과 사서들은 생존을 위한 변혁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며, 주변의 물적 및 인적 자원들과 활발한 협력을 모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도서관과 학교 현장에서 지역사회와의 인적 자원과 협력하고 활용하는 방법으로 ‘사람 책’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외국에서 휴먼 라이브러리라고 일컫는 이 프로그램은 2000년부터 덴마크에서 시작이 되어 현재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활동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3월 서울 노원구에 상설 휴먼 라이브러리가 생기면서 본격 활동이 시작되었는데, 아직까지 몇몇 도서관에서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최근 여러 도서관에서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시도하고 있다.

인적 자원을 연결하면서 ‘책’과 ‘읽기’라는 방법을 함께 활용한 ‘사람 책’ 프로그램은 도서관과 접점이 있는 활동이다. 따라서 전국의 학교 및 대학, 공공도서관에서 사서가 주도하는 ‘사람 책’ 프로그램이 활발히 실행된다면, 자연스럽게 도서관 이용률이 증가하고 자료 활용률이 증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도서관과 사서 직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증진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하였던 ‘사람 책’ 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하여, 도서관의 특성에 적합하면서 사서가 주도하는 활동이 될 수 있는 ‘사람 책’ 프로그램을 다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 문제 및 방법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되었던 ‘사람 책’ 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하여, 도서관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첫째,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사람 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선행 연구 자료들을 찾아 고찰하였다.

둘째,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된 ‘사람 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사람 책’ 구성 현황,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람 책’ 프로그램 효과를 정리 및 분석하였다. 이 가운데 ‘사람 책’ 구성 현황과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제공한 자료를 표로 정리하여 분석하였으며, 프로그램 효과는 ‘사람 책’ 프로그램을 운영한 학교의 담당 교사들에게 진행한 심층 인터뷰 결과와 독자로 참여한 학생들의 참여 소감문(사후 활동지)을 Morgan과 Scannell(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에 따라 분석하였다.

셋째, 위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이 주체가 되어 ‘사람 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제시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안과 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사람 책

‘사람 책(human book)’은 리빙 라이브러리

(living library) 혹은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만 ‘사람 책’은 독자를 만나 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개개인을 지칭하는 것이고, ‘리빙 라이브러리’나 ‘휴먼 라이브러리’는 활동 전반을 지칭하는 용어라는 차이가 있다. 휴먼 라이브러리(human library)는 2000년도에 덴마크에서 시작된 새로운 형태의 도서관으로, 도서나 인쇄 매체가 아닌 사람이 정보자료가 되어 이용자와 직접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전달하는 도서관서비스의 개념이다. 이러한 휴먼 라이브러리는 전 세계적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이후 다양한 형태로 파급되고 있는 실정이다(조찬식 2014, 10).

‘사람 책’을 통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휴먼 라이브러리는 기존의 도서관서비스와 다른 몇 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휴먼 라이브러리에서는 ‘사람 책’과 이용자가 직접 대면하여 정보교환이 진행되기 때문에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호작용성을 통해 이용자는 기존 도서관서비스에 필요한 정보에의 지적, 심리적 접근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또한 휴먼 라이브러리에서는 문제해결을 위해 ‘사람 책’과 이용자 사이에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교환이 가능하며, 이용자의 판단에 기초한 정보서비스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기존 도서관서비스와 비교되는 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휴먼 라이브러리의 의미를 도서관 입장에서 살펴보면, ‘사람 책’을 활용하여 도서관 자료의 범주를 넓히고 도서관서비스의 다양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도서관이 시대나 사회에 따라 자료와 도서관의 이용을 다양하게 해왔

다면, '사람 책'을 통한 휴먼 라이브러리는 변화하는 정보요구에 대한 대응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휴먼 라이브러리는 '사람 책'과 이용자의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행사를 통해 도서관과 지역사회의 관계를 강화시키며, 현대 사회에 보편화되어가는 재능기부 문화의 확산과 활성화에 기여하게 된다(조찬식 2014, 10).

우리나라에는 2012년 3월, 서울 노원구에 최초로 상설 휴먼 라이브러리가 생겼다. 현재 노원 휴먼 라이브러리는 책 대신 문화, 의료, 금융, IT, 환경, 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718명의 휴먼 북이 비치되어 있다. 독자들은 도서관에 와서 책을 빌리는 게 아니라 '휴먼 북'을 빌린다. 책처럼 사람을 빌린다는 말이 잘 이해가 가지 않을 수 있지만 이용방법은 간단하다.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하고, 휴먼 북의 목록을 살핀 후 열람을 신청하면 휴먼 북과의 일정을 조정해 만남이 이루어진다. 일대일로 만나 대화를 나누는 것이다. 모두 휴먼 북들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여료가 들지 않는다. 따로 비용을 내지 않고도 책을 대신할 사람과 눈을 맞추고 대화하는 특별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 지난해(2016년) 휴먼 북 열람 건수는 7,400여 건에 달한다(허정숙 2017, 48).

2.2 선행 연구

'사람 책' 활동이 국내에 본격적으로 소개되고 공공도서관에서 행사로 접목된 것이 채 10년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선행연구는 학위논문 및 학술지를 통해 발표된 연구와 학술대회를 통해 발표된 자료를 고찰하였다.

하락중(2017)은 '사람 책 도서관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거제 YMCA 사람 책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를 통해, 사람 책 참여자가 참여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신뢰, 참여, 네트워크)이 형성되는 것에 대한 점을 살펴보고 있다. 이를 위해 거제 YMCA에서 시행한 사람 책 도서관에 대한 사례를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 사람 책 참여자들은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사람 책 도서관 활동이 활성화 되면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 및 계층들과의 만남, 그리고 대화를 통한 소통으로 신뢰가 회복되고 상호간의 네트워크가 형성되며 역동성과 공동체성을 확대해 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남효진(2017)은 '통합독서를 위한 리빙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연구'를 통해, 초등학교에서 접목할 수 있는 통합독서활동으로서의 리빙 라이브러리를 연구하여 그 가치를 '살아있는 경험 읽기, 공동체적 읽기, 공감적 상상력으로 읽기, 창의·융합적 읽기'의 4가지로 논의하였다. 또한 통합독서활동으로서의 리빙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을 초등학교 현장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임성관(2017)은 '사람 책 참여자의 체험 현상 분석 연구'를 통해, 사람 책의 실제 체험을 통해 겪게 되는 주관적인 경험을 현상학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들을 고찰하고 선행되어진 논문자료들을 수집하여 분석하였고,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사람 책 체험의 현상학적 특성을 도출하기 위해 연구 대상자를 선정하고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경기도교육청 소속으

로 2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사람 책 3명으로서, 심층 인터뷰의 내용은 첫째, 사람 책의 필요성, 둘째, 사람 책 활동을 통한 체험, 셋째, 사람 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넷째, 사람 책 적용의 개선점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그 결과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한 학교 및 독자 수, 사람 책의 숫자는 계속 확장되었고, 더불어 사람 책 활동은 참여 독자들은 물론이고 사람 책 자신에게도 성장의 기회가 되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임효창(2017)은 ‘공공기관의 지식공유 사례 연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휴먼 라이브러리와 위키북’을 통해, 지식정보사회에서 공공기관이 지식창출, 지식공유, 지식경영을 통해서 대국민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그 일환으로 운영된 휴먼 라이브러리와 위키북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고 나아가 향후 다른 공공기관에의 확산 가능성과 성공적인 제도 운영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재형(2016)은 ‘리빙 라이브러리의 비판적 검토와 독서교육적 함의’ 연구를 통해, 새로운 독서운동으로 시도되고 있는 리빙 라이브러리의 개념과 성격을 알아보고 비판적으로 검토해 본 후, 거시적인 의미로서의 독서교육적 함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리빙 라이브러리는 사람 책과 이용자의 상호작용, 운영상의 저예산, 도서관의 공공성·평등성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있으나, 동시에 그 운영이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사람 책 범위의 제한 등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리빙 라이브러리는 비록 문자 텍스트 읽기는 아니나, 거시적인 독서 프로그램으로서 그 독서교육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도 밝혀냈다.

조찬식(2014)은 ‘휴먼 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를 통해 휴먼 라이브러리에 대한 이론적 배경과 성북구의 휴먼 라이브러리의 배경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2012년과 2013년에 진행된 성북구의 휴먼 라이브러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과 실태 및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분석·제시함으로써 휴먼 라이브러리에 관한 이해 증진에 일조하였다.

황희선(2014)은 ‘휴먼 라이브러리 기획 과정 연구: 휴먼 라이브러리의 정체성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를 통해, 휴먼 라이브러리의 정체성과 방법론에 비추어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기획 과정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휴먼 라이브러리 행사의 성패는 운영자 및 기획자 요소가 중요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심도 있는 커뮤니티의 필요성, 기획자를 위한 교육과 교류가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이 밖에도 김민영과 황인혜(2015)는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를 통해 ‘공공도서관의 휴먼 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를, 박나원과 오동근(2015)은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대회를 통해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휴먼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사람 책’(휴먼 라이브러리 혹은 리빙 라이브러리 포함)에 관한 연구는 아직 활발하지 않지만 개념에 대한 정립에서부터, 비판적 검토를 통한 교육적 함의 고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기획 과정,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분석, ‘사람 책’으로 직접 체험한 연구자의 분석, 사회적 자본 형성 및 공공기관의 지식공유의 측면에서의 접근 등 다

양한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본 논문과 같이 3년 이상 운영된 '사람 책' 프로그램 사례를 분석한 뒤 도서관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경기도교육청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사례

3.1 사람 책 구성 현황

'사람 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활동에 참여할 '사람 책'을 모집해 구성할 필요가 있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2015년부터 적정 '사람 책'을 구성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5년에 구성된 '사람 책'은 총 70명, 2016년에는 120명, 2017년에는 185명이다. 이상의 내용을 연도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2015년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26명으로 가장 많고, 지역 활동가가 13명, 교원(교수)이 10명의 순이다. 그리고 2016년에 구성된 '사람 책'은 총 121명으로 2015년의 70명에 비해 51명이 증가하였다. 또한 각 '사람 책'의 분야를 보면

분야별 숫자에서는 전문가, 직장인, 교원(교수) 및 지역 활동가의 순으로 많았다. 2015년 대비 증감률에서는 학부모, 전문가, 직장인의 순서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공무원의 경우에는 구성의 변동이 없는 분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017년에 구성된 '사람 책'은 총 185명으로 2015년의 70명에 비해 115명, 2016년의 121명에 비해 64명이 증가했다. 또한 각 사람책의 분야를 보면 총 숫자에서는 전문가, 학부모, 교원(교수) 및 직장인의 순서로 많았다. 이 결과는 2017년의 전문가, 직장인, 교원(교수)과 달라진 측면이다. 이어서 2016년 대비 증감률에서 보자면 기타, 학부모, 전문가의 순서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결과 또한 2015년 대비 2016년의 증감률인 학부모, 전문가, 직장인과는 달라진 것이다. 특히 공무원은 유일하게 감소된 분야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현재 경기도교육청 내 '사람 책'은 총 185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능기부자로, 자신의 이야기를 타인에게 전함으로써 인생을 돌아보는 성장의 기회를 갖고 싶거나, 자신의 이야기를 통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전하고 싶은 사람, 혹은 나만의 어려움과 편견을 경험하고 극복한 사람, 전문적 지식 및 역량을 나누고 싶은 사람으로

<표 1> 2015~2017년 '사람 책' 구성 현황

분야 (직업)	교원 (교수)	공무원	전문가	지역 활동가	학부모*	직장인	기타	계
수(명)	10	5	26	13	3	7	6	70
	14	5	54	14	11	15	8	121
	17	4	69	14	31	17	33	185

* 교육봉사

그 자격이 제한되었다. 또한 모집 분야는 ‘기술/재능, 주부, 봉사/복지, 환경, 교육, 소방/경찰, 자영업, 직장인, 해외 활동, 공무원, 스포츠/레저, 문화/예술, 시민운동, 대중문화인, 건강/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와 같은 기준을 바탕으로 최종 ‘사람 책’으로 선정이 된 사람들은 ‘사람 책’ 재능 나눔 신청서, ‘개인 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사람 책 서문’을 제출한 뒤 최종적으로 ‘사람 책’ 프로그램 지원단의 기준을 통과한 이들이다.

3.2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현황

경기도교육청은 2015년부터 ‘사람 책’ 프로그램을 시작한 이후 2017년까지 3년째 운영을 해왔다. <표 2>부터 <표 4>까지는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의 ‘사람 책’ 운영 현황이다. 포함된 항목은 활동 장소(각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과 학교명), 운영 일자, 그리고 ‘사람 책’ 프로그램에 참여할 독자에 대한 구분 및 숫자, 그리고 각 장소(학교)에서 활동을 펼친 ‘사람 책’의 숫자이다.

2015년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사람 책’ 프로그램을 계획 및 운영하기 시작한 해이다. 따라서 적정 ‘사람 책’을 모집 및 구성하고, 관내 학교(기관)에

적용해 봄으로써 향후 확대 적용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 책’ 프로그램이 2015년도에는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서 각 한 차례, 그리고 중·고등학교에서 각각 한 차례씩만 운영된 것을 <표 2>의 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참석 인원(독자 수)은 총 781명, 사람 책은 총 80명이었다.

2016년 한 해 동안 경기도교육청 ‘사람 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는 총 24개교이다(<표 3> 참조).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은 5월 28일 토요일 화성시에 있는 동탄고등학교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12월 27일 화요일 성남시에 있는 태평중학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또한 참여한 독자의 수는 3,785명이고, 사람책의 숫자는 총 422명이었다.

2017년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종합해 보면, 2017년 한 해 동안 경기도교육청 ‘사람 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는 총 28개교이며 교육지원청도 한 곳이 있다(<표 4> 참조).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은 5월 1일 월요일 광명시에 있는 광문중학교에서 시작이 되었으며, 12월 14일 목요일 시흥시에 있는 배곧중학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 또한 프로그램에 참여한 독자의 수는 4,374명이고, ‘사람 책’의 숫자는 총 427명이었다.

<표 2> 2015년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분	일시	장소	참여대상	참석 인원	비고
1회	2015. 9.11(금) 13:00~17:00	경기평생교육 학습관	학생, 학부모, 일반	130명	독서의 달(9월) 행사연계실시
2회	2015. 9.18(금) 13:00~17:00	운산고등학교	운산고 학생	300명	진로주간 행사연계실시
3회	2015. 10.15(목) 13:00~17:00	연천중학교	연천중 학생	150명	교육과정 연계실시
4회	2015. 10.22(목) 13:00~17:00	경기도교육청 북부청사	학생, 일반인	201명	학생(128명) 일반인(73명)

〈표 3〉 2016년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번	학교명	지역	운영일	독자	독자 수	사람 책
1	동탄고	화성	2016-05-28(토)	독서 가족	30명	1명씩
2	경민비즈니스고	의정부	2016-06-17(금)	동아리	31명	4명
3	회천중	동두천양주	2016-07-11(월)	동아리	30명	4명
4	호곡중	고양	2016-07-13(수)	중 1	164명	20명
5	호곡중	고양	2016-07-14(목)	중 1	127명	20명
6	저현고	고양	2016-07-15(금)	신청자	60명	8명
7	지평중	양평	2016-07-19(화)	전교생	160명	20명
8	근명중	안양과천	2016-07-22(금)	신청자	70명	10명
9	원천중	수원	2016-08-26(금)	중 1	190명	15명
10	태평중	성남	2016-08-30(화)	중 1	30명	4명
11	광덕고	안산	2016-09-07(수)	신청자	80명	12명
12	동탄고	화성	2016-09-10(토)	독서 가족	30명	1명씩
13	태평중	성남	2016-09-13(화)	중 1	30명	4명
14	태평중	성남	2016-09-27(화)	중 1	30명	4명
15	운중고	성남	2016-09-28(수)	고 1	248명	31명
16	배곧중	시흥	2016-10-06(목)	중 1	146명	20명
17	금촌중	파주	2016-10-06(목)	중 1	140명	15명
18	금촌중	파주	2016-10-06(목)	중 1	140명	15명
19	지도중	고양	2016-10-07(금)	중 1	232명	21명
20	성호중	안산	2016-10-10(월)	중 1	310명	10명
21	범계중	안양	2016-10-10(월)	중 1	302명	30명
22	청산중	연천	2016-10-12(수)	전교생	74명	14명
23	청덕고	용인	2016-10-17(월)	신청자	40명	6명
24	상하중	용인	2016-10-20(목)	동아리	17명	2명
25	태평중	성남	2016-10-25(화)	중 1	30명	4명
26	신길중	안산	2016-10-26(수)	중 1	70명	7명
27	두일중	파주	2016-10-27(목)	중 1	60명	8명
28	장성중	고양	2016-11-01(화)	중 1	217명	22명
29	덕소중	구리남양주	2016-11-03(목)	중 1	232명	25명
30	태평중	성남	2016-11-08(화)	중 1	30명	4명
31	태평중	성남	2016-11-29(화)	중 1	30명	4명
32	백양중	고양	2016-12-09(금)	중 3	205명	20명
33	상하중	용인	2016-12-13(화)	중 3	140명	15명
34	태평중	성남	2016-12-13(화)	중 1	30명	4명
35	태평중	성남	2016-12-27(화)	중 1	30명	4명

〈표 4〉 2017년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현황

연번	학교명	지역	운영일	독자 수(명)	사람 책(명)
1	광문중	광명	2017-05-01(월)	7	1
2	파주고	파주	2017-05-19(금)	15	3
3	금촌중	파주	2017-05-24(수)	20	2
4	운중고	성남	2017-05-24(수)	160	20
5	상우고	의정부	2017-05-26(금)	194	23
6	호곡중	고양	2017-05-29(월)	100	10
7	장안중	성남	2017-06-16(금)	200	10
8	금촌중	파주	2017-06-17(토)	20	2
9	원천중	수원	2017-06-30(금)	148	15
10	해솔중	파주	2017-07-03(월)	20	3
11	지도중	고양	2017-07-04(화)	231	23
12	명문고	광명	2017-07-10(월)	30	5
13	덕소중	남양주	2017-07-11(화)	256	20
14	청산중	연천	2017-07-13(수)	76	10
15	저현고	고양	2017-07-14(목)	60	9
16	금촌중	파주	2017-07-15(금)	20	2
17	지평중	양평	2017-07-18(화)	155	20
18	상록고	안산	2017-07-24(월)	30	7
19	금촌중	파주	2017-08-19(토)	20	2
20	장안중	성남	2017-09-08(금)	200	10
21	연천교육지원청	연천	2017-09-08(금)	500	50
22	송현고	의정부	2017-09-12(화)	80	8
23	성안중	안산	2017-09-13(수)	100	10
24	금촌중	파주	2017-09-16(토)	20	2
25	산내중	파주	2017-09-27(수)	18	2
26	범계중	안양	2017-09-28(목)	275	27
27	연천중	연천	2017-10-13(금)	103	15
28	청덕고	용인	2017-10-17(화)	100	14
29	장안중	성남	2017-10-18(수)	200	10
30	금촌중	파주	2017-10-21(토)	20	2
31	신길중	안산	2017-10-25(수)	60	8
32	부천북여중	부천	2017-11-17(금)	18	3
33	금촌중	파주	2017-11-18(토)	20	2
34	과천중	과천	2017-11-28(화)	222	22
35	백양중	고양	2017-12-06(수)	177	15
36	신갈중	용인	2017-12-08(금)	100	10
37	장안중	성남	2017-12-13(수)	170	10
38	배곧중	시흥	2017-12-14(목)	230	20

이상의 내용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2017년 까지 '사람 책' 프로그램의 운영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하면 <표 5>와 같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람 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교(기관)는 총 57개교이다. 또한 참여한 독자의 수는 8,759명이고, '사람 책'의 숫자는 총 929명이었다. 이어서 증감 정도를 보자면 2015년에 비해 2016년에는 참여 학교(기관)가 20곳, 참여 독자의 수가 3,185명, '사람 책'의 수가 342명 증가했다. 그리고 2017년에는 2016년에 비해 참여 학교(기관)가 5곳, 참여 독자의 수가 589명, '사람 책'의 수가 5명 증가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사람 책' 프로그램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3.3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효과

경기도교육청의 '사람 책' 프로그램은 각 학

교의 담당 교사, 그리고 독자였던 관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참여가 있었기에 운영될 수 있었다. 따라서 '사람 책' 프로그램의 운영 효과에 대한 검증 역시 그들을 대상으로 실시가 되었다. <표 6>은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학교의 담당 교사들에게 실시한 심층 인터뷰 항목과 문항을 정리한 것으로, 최종 분석 대상이 된 사람은 총 13명이었다.

<표 7>은 운영 학교 담당 교사 대상 심층 인터뷰 항목 중 '사람 책'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정리 및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 학교의 담당 교사들은 '사람 책' 프로그램이 필요하거나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다만 보통이라고 응답한 교사도 1명이 있는데, 그 이유는 '강의료도 없이 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 책 가운데 멀리 사는 분을 대출하기에 미안함을 갖고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표 8>은 운영 학교 담당 교사 대상 심층 인터뷰 항목 중 '사람 책' 프로그램이 학교나 학

<표 5> 2015~2017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결과 분석

년도	참여 학교 수(개)	참여한 독자의 수(명)	사람 책의 수(명)
2015	4	600	80
2016	24	3,785	422
2017	29	4,374	427
합계	57	8,759	929

<표 6> 운영 학교 담당 교사 대상 심층 인터뷰 내용

항목	질문 문항
인구통계학적 측면	성명, 성별, 담당 교과목, 사람 책 업무 담당 경력(년/학기), 해당 학교가 '사람 책' 프로그램을 실시한 횟수
'사람 책' 프로그램의 필요성	'사람 책'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5점 만점으로 응답)
사람 책 활동을 통한 체험	'사람 책' 프로그램이 학교나 학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람 책에 대한 인식의 변화	'사람 책' 프로그램을 신청 및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
사람 책 적용의 개선점	'사람 책' 프로그램의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까요?

〈표 7〉 ‘사람 책’ 프로그램의 필요성

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다	보통이다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합계
수(명)	0	0	1	4	8	13
응답률(%)	0%	0%	7.7%	30.8%	61.5%	100%

〈표 8〉 ‘사람 책’ 프로그램이 학교나 학생에게 도움이 된 측면

순번	응답자	답변 내용
1	교사 A	지식과 기술로 접할 수 없는 다양한 인생 경험을 지닌 사람 책과의 만남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희망을 발견하는 지혜를 배운다.
2	교사 B	색다른 직업이나 삶의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 책과의 직접적인 만남은 학생들에게 색다른 흥미와 참여 동기를 부여했고, 책이나 교과 교육을 통해 얻을 수 없는 생생한 교육적 효과가 있었다.
3	교사 C	사람책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궁금한 내용을 묻기도 하면서 삶의 지혜를 얻고 용기도 얻는 것을 보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았다.
4	교사 D	지역 사회에서 각기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을 도서실에서 만날 수 있고, 그분이 직업을 갖기 위해 노력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글이 아닌 만남으로 알 수 있었던 점이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
5	교사 E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과 잘 어울리는 직업을 찾아보는 시간을 가져 재미있었고, 어떻게 해야 나의 꿈과 가까워지는지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6	교사 F	학생들이 부모, 교사가 아닌 다른 어른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면서 관련 직업에 대한 정보도 얻고, 삶을 대하는 태도 및 앞으로 살아갈 방향에 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 있었던 점이 좋았다. 그리고 학생에 따라서는 힘들어하는 점에 대한 공감을 얻고 희망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었다.
7	교사 G	삶의 중심이 성적에 치중되어 삶의 가치와 의미를 생각할 시간이 부족했던 중학교 학생들에게, 사람 책이 살아온 삶의 이야기가 진솔하게 느껴지고 인생의 지침서처럼 생각되며,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공부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고 하는 소감문을 읽으면서 더욱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됐다.
8	교사 H	생소했던 사람 책에 대해 알게 되었다.
9	교사 I	사람책의 다양한 삶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한다.
10	교사 J	다양한 경험을 간접 경험함으로써 자신과 주변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인성교육 기회였다. 또한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사람 책과의 만남을 통한 진로교육의 장이기도 했다.
11	교사 K	‘사람 책’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다양한 직업인들을 초청할 수 있었고, 또한 학생들이 사람 책을 원하는 대로 고를 수 있어서 좀 더 다양한 경험을 나누고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12	교사 L	교사가 아닌 지역 사회의 다른 전문가나 직업인(사람 책)을 만나서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었고, 대화를 통해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며, 편견과 독선에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기회가 되었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 삶과 삶의 일체화를 경험하였다.
13	교사 M	학생들이 대부분 볼 수 있는 삶은 담임교사나 부모, 학원 강사가 전부일 것이다. 다양한 삶과 인생을 보면서 다른 직업에 대한 간접 경험과 동시에, 살아가는 동안 다양한 삶과 같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데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을 정리 및 분석한 것이다.

답변 내용을 분석 및 종합해 보면 담당 교사
들은 ‘사람 책’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들에게 교

육적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인생 경험을 지닌
사람 책과의 만남은 책이나 교과 교육을 통해 얻
을 수 없는 생생함과 함께 색다른 흥미와 참여

동기를 부여하는 등 생생한 교육적 효과를 주었고, 여러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 책들의 경험 나눈 학생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찾아볼 수 있는 기회도 되어 주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표 9〉는 운영 학교 담당 교사 대상 심층 인터뷰 항목 중 '사람 책 프로그램을 신청 및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나요?'에 대한 응답을 정리 및 분석한 것이다.

답변 내용을 분석 및 종합해 보면 '사람 책' 프로그램을 신청 및 운영하면서의 어려움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신청 학교가 있는 지역 내 사람 책 인프라가 부족하다 보니 원하는 분을 요청할 수 없어 신청 학생들에게도 원하는 만남을 주선할 수가 없었다. 둘째, '사람 책' 프로그램에 대한 교내 인식이 부족하고 운영을 위한 여건도 뒷받침되지 못하다 보니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담당 교사를 도와줄 수 있는 인력이 없다 보니 다른 업무와 함께 처리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부담이 뒤따랐다.

〈표 10〉은 운영 학교 담당 교사 대상 심층 인터뷰 항목 중 '사람 책' 프로그램의 저변 확

〈표 9〉 '사람 책' 프로그램 신청 및 운영 시 어려운 점

순번	응답자	답변 내용
1	교사 A	사람 책 소개 서문을 읽고 원하는 사람 책에 대한 매칭이 1순위로 안 되고 차순위나 차차순위가 될 때, 학생들이 진정 만나고 싶은 사람 책에 대한 의향을 반영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컸다.
2	교사 B	운영 시간의 조율이 어려웠다. 방과 후 운영은 학생들 개인의 시간을 조율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3	교사 C	'사람 책' 프로그램의 연수를 듣기 위해 경기북부청사로 가야 한다는 점이 가장 어려웠다.
4	교사 D	봉사하는 분의 지역을 고려하여 선택하다보니 한계가 있다. 아이들이 정말 원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 책이 더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5	교사 E	'사람 책' 프로그램 실시에 대한 관리자, 교사, 학생들의 이해가 부족했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활동을 할 때 교실 확보가 어려웠다.
6	교사 F	'사람 책'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학생들은 많은데 인력풀이 충분하지 않다보니 사람 책 선생님을 모시기 위해 교육청 담당 선생님께서 너무 애쓰시는 것 같다.
7	교사 G	현실적으로 학교에서 함께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부원이 없는 실정이라서 다른 많은 업무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 다른 추가 업무인 현실이 안타깝다. 또한 장소 및 기자재 등 여건 상 어려움이 많다.
8	교사 H	고등학교라서 학생 모집이 쉽지 않았고, 사람 책이 당일 갑자기 오지 않으셔서 학생을 재배치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9	교사 I	가까운 지역에 계신 다양한 직업과 삶을 사신 분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멀리 사는 사람 책을 대출하기에는 너무 미안했고, 강의료도 없는 봉사여서 신청할 수가 없었다. 고정적 강의료가 이분들께도 지급되면 미안함이 적을 것 같다.
10	교사 J	자유 학기제 수업을 활용하다보니 특별히 어려운 점은 없었다.
11	교사 K	'사람 책' 프로그램을 신청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으나, 맨 처음 요청했던 사람 책 인원수만큼 채워지지 않아(20명 요청에 17명 참석 등) 학생들을 분산해서 배치하는 문제가 있었다.
12	교사 L	교내 사람 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협력자를 찾기가 어려웠고, 학생들의 효과나 반응은 엄청났지만 외부인의 학교 출입으로 인한 안전과 경계의 시선도 있었다.
13	교사 M	사람 책 자원의 인프라가 많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경기도교육청 지원단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면 운영이 힘들었을 것이다.

〈표 10〉 ‘사람 책’ 프로그램 저변 확대를 위한 개선점

순번	응답자	답변 내용
1	교사 A	학교 업무 담당자만이 아니라 교육 공동체 전체가 이 프로그램을 인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홍보 및 지속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학교 관리자에 대한 인식 역량 강화 연수를 통해 학교 교육 과정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2	교사 B	사람 책과의 만남이 1회적으로 끝나기보다는 2-3회 정도의 만남이 이루어진다면 더 내실이 있을 것 같다. 1회적 만남으로는 학생들에게 질적인 만족감을 주기에 부족함이 있다. 이야기를 듣고 구체적인 설계나 활동에 대해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더욱 좋은 프로그램이 될 것 같다.
3	교사 C	‘사람 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봉사하시는 분의 회사나 자영업 장소에 사람 책 봉사활동에 참여한다는 인증 팸말을 부착해드리면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도 되고, 봉사자는 나름 자부심을 가지고 더 열심히 활동할 것 같다.
4	교사 D	선택을 위해서 사람 책 봉사자 수가 더 확대되었으면 좋겠다. 무료 봉사라고 하지만 초빙하는 입장에서는 미안한 느낌이 많이 들었다. 따라서 봉사하는 분께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5	교사 E	‘사람 책’ 프로그램 실시 필요성에 대한 관리자, 교사,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고, 지역 사회 사람 책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6	교사 F	사람 책 인력풀이 보다 확대되었으면 좋겠고, 관리자, 교사, 학생 등의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또한 참여하는 학교가 늘어나면서 인지도가 확대되면 자연스럽게 저변이 확대될 것 같다.
7	교사 G	각 지역별 마을 교육 공동체 센터가 있어도 좋겠고, 사람 책이 사용할 노트북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
8	교사 H	사람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사람 책 자원 봉사자의 인력풀 보강이 필요하다.
9	교사 I	많은 사람 책 확보가 필요할 것 같다.
10	교사 J	우리 지역(남양주) 사람책의 부족으로 멀리서 오시는 경우가 많았는데, 더 많은 홍보와 사람 책 확보가 필요해 보인다.
11	교사 K	현재의 시스템으로 지속적 유지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한다.
12	교사 L	마을 공동체와 학부모의 협력을 통한 체계적 교육 시스템 구축과 지속적인 사람 책 역량 강화가 필요하고, 다양한 정보 공유와 나눔을 통한 지역 사회 사람 책 발굴과 활성화도 필요하다.
13	교사 M	‘사람 책’ 프로그램을 교육청 차원이 아니라 은퇴 이후 봉사나 새로운 교육 기부 형태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시나 동의 시니어 클럽과 연계하여 지자체가 인력풀을 구성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대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필요하거나 개선되어야 할까요?에 대한 응답을 정리 및 분석한 것이다.

답변 내용을 분석 및 종합해 보면 ‘사람 책’ 프로그램의 저변 확대를 위한 개선점은 두 가지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지역별 마을 교육 공동체가 설립되어 다양한 분야의 사람 책을 확보하고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나갈

방안이 필요하다. 둘째, ‘사람 책’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효과를 각 학교 및 지역 사회에 활발히 홍보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인식을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독자로 참여한 학생들로부터 ‘사람 책’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우선 2016년도에 참여한 학교 가운데 중학교 한 곳, 2017년도에 참여한 학교

가운데 고등학교 한 곳을 선정하였다. 이 학교들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참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소감문을 받아 제출하라는 제안을 받지 않았음에도, 자발적으로 평가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보고한 곳이다. 다만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 전체가 소감문을 작성한 것은 아니어서, 본 연구자들은 경기도교육청으로부터 건네받은 것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그중 예시가 될 수 있는 소감문을 중학교 및 고등학교 각각 한 개교씩 제시하였다. <그림 1>은 A

중학교에서 '사람 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작성한 소감문(사후 활동지)이다.

이상과 같이 작성된 소감문(사후 활동지)에는 '내가 만난 사람 책'에 대해, '그 사람 책과 대화를 나누고 좋았던 점', 나아가 '사람 책과의 대화에서 느낀 점과 자신에게 끼친 영향을 기술하는 주관식 문항과, 향후 프로그램에 또 참여하고 싶은지, 그리고 사람 책을 열람하면서 어려운 점은 무엇이었는지를 5점 척도로 묻는 객관식 문항 2개가 포함되어 있었다. 8명의 독

〈사후 활동지〉	
10월 12일, Human Library가 열립니다. 사람 책에게 듣는 생생한 삶의 이야기!	학번: 30111
	이름: 오**
☞ '사람 책' 프로그램에 참가한 후 느낀 점을 성실성의껏 작성해 주세요. 작성을 잘한 학생에게 선물을 드립니다.	
1. 내가 만난 사람 책은? ▶ 책 제목: 뜬 발로 마음껏 세상을 늘 바라보자. ▶ 사람 책 이름: 김**	
2. 위 사람 책과 대화를 나누고 어떤 점이 좋았는지 적어주세요.	
사람 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사람책의 이야기 중 자신의 딸아이와의 이야기는 어머니의 입장에서 보는 아이를 걱정하는 마음, 소통하고자 하는 맘이 느껴져 인상 깊었다.	
3. 사람 책과의 대화에서 느낀 점, 자신에게 끼친 영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적어주세요.	
집에 가서 어머니에게 사랑해요 한 번 더 할 수 있을 듯	
4. 이후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그렇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 사람 책 열람 중 어려운 점은 무엇인가? ① 대화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 √ ② 시간 부족 ③ 기대한 내용 불일치 ④ 사람 책의 준비 및 설명 부족 ⑤ 기타 ()	

〈그림 1〉 A중학교 독자가 작성한 소감문 사례

자가 작성한 소감문(사후 활동지)을 분석한 결과, 사람 책과 이야기를 나눈 뒤 좋았던 점에 대해서는 교훈과 감동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재미도 있었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형식적이지 않은 생생한 이야기를 들은 점도 좋았던 점이라고 꼽았다. 이런 과정은 통찰이 어려운 중학교 학생들에게 자신에 대해, 나아가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었을 것이다. 이어서 향후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객관식 문항에서도 5명이 ‘매우 그렇다’, 3명이 ‘그렇다’에 응답을 하

는 등 긍정적인 결과가 확인되었다. 다만 사람 책 열람 중 어려운 점으로는 4명이 ‘시간 부족’을, 3명이 ‘없다’를, 1명이 ‘대화 주제에 대한 사전 지식 부족’을 꼽았기 때문에, 향후 프로그램에서는 충분한 시간 확보를 통해 사람 책과 독자들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림 2〉는 B고등학교에서 ‘사람 책’ 프로그램에 참여한 학생이 작성한 소감문(사후 활동지)의 사례이다.

‘사람 책’ 활동지				
B고등학교 1학년 (1)반 (18번) 성명 (김**)				
책 제목	여러분은 열정적인 사람인가요?			
사람책 이름	김**	일시	2017. 5. 24(수) 2~4교시	장소 도서실(2층)
사람 책을 읽기 전에(사전 질문)				
1. 내가 위 책을 고른 이유를 써 보세요.				
내가 평소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빈둥빈둥 놀며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한 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은 열정적인 사람인가요?’란 사람 책을 읽고 나 자신을 바꾸어보도록 할 수 있는 조언을 듣고 싶어서 선택하였다.				
2. 사람 책 소개문을 읽고 궁금한 점, 질문하고 싶은 점 세 가지만 적어보세요.				
1) 살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2) 열심히 살아오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3) 열정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 필요한 마음가짐은 무엇인가요?				
3. 사람 책 선생님들은 순수 자원봉사자로 여러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은 분들입니다. 사람 책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적어볼까요?				
저희에게 작은 조언이라도 주시기 위해 **고에 와주신 자원봉사자분들에게 실망을 드리지 않도록 사람 책을 읽는 동안 딴 짓하지 않고 경청하며 나의 인생과 관련지어 생각하며 수업에 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사람 책을 읽은 후에(사후 소감문)				
사람 책을 읽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다. 김** 선생님은 먼저 자신에 대해 설명해주시고 돌아가면서 자신이 열정적인 사람인가에 대해 말했다. 선생님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다.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 있을 역경에 대해 그때 내가 느낄 감정이나 닥칠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가 힘들 때 잘 헤쳐 나가야 되는데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조금은 도움이 된 것 같다. 그 뒤에 한 명씩 돌아가며 자신의 진로에 대해 말하였다. 한 명이 말할 때 마다 조언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보고 정말 감사하다고 생각했다. 선생님의 말씀 하나하나가 도움이 되었다. ‘사람 책’ 프로그램은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인 것 같다. 나보다 경험이 많으신 분들께서 인생에 대해 상담해주는 건 일반 책을 읽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하면 더 머리에 잘 들어오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다.				

〈그림 2〉 B고등학교 독자가 작성한 소감문 사례

B고등학교에서 운영된 '사람 책' 프로그램에 대한 소감문(사후 활동지)에는 '내가 선택한 책의 제목'과 '사람 책 이름'을 먼저 적고, '내가 이 책을 고른 이유'와 '사람 책 소개문을 읽고 궁금한 점 및 질문하고 싶은 점 세 가지', 그리고 '사람 책을 대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나 태도'를 먼저 생각해서 적게 한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항목들은 '사람 책' 프로그램에 참여하기에 앞서 본 활동에 대해 학생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이어서 사후 소감문은 '사람 책을 읽은 후에'라는 제목 아래 자유롭게 기술 할 수 있도록 하였다. B고등학교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람 책'은 총 19명이었다. 소감문을 분석한 결과 독자로 참여한 학생들은 '책을 읽는 것보다 대화를 통해 더 머리에 잘 들어가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프로그램', '책 제목을 잘 지으신 것 같고 체육을 좋아하는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그 분을 한 번 더 만나봤으면 좋겠다', '내가 내 진로를 선택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다. 앞으로 내 인생을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아야겠다', '나는 오늘 이 경험으로 항상 웃으며 행복하고 건강하게 압도 안 걸리고 살 수 있을 것 같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뭘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될지 배운 게 너무 많았다', '이 사람 책을 읽고 어디로 가야할지 대충 윤곽이 잡혔다', '선생님의 인생 이야기를 들으며 나의 미래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되었다', '확실히 인생의 선배로서 겪은 일들이 매우 공감되고 내가 만날 일들에 큰 해결책이 될 것 같다', '사람책 활동은 정말 유익하고 재미있다. 다음에 또 사람 책을 읽어보고 싶다' 등의 답변을 하였다. 이를 요약하

면, 독자였던 학생들은 자신에 대해, 나아가 진로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한 것은 물론이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나아가 결론을 바탕으로 '사람 책' 프로그램이 참여 학생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4. '사람 책' 프로그램의 도서관 적용 방안

4.1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로드맵

로드맵(Road Map)은 기업·국가·국제 사회 등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사용하며,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략 등이 담긴 구상도·청사진 등을 의미한다. 로드맵은 그 자체보다 작성하는 과정이 더 중요한데, 왜냐하면 관계자들의 협의를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추진하고자 하는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여 해당 로드맵을 활용하는 곳에서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람 책' 프로그램을 위해서도 적정 로드맵이 필요하며 각 도서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표 11〉은 도서관(학교·대학·공공도서관 모두 포함)이 주관 단체가 되어 지역 사회와 네트워크를 형성해 '사람 책'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로드맵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사례를 바탕으로 구성 및 제시한 것이다. 사람 책을 구성하고 유지하며 확장해 나가기 위한 단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람 책' 구성 현황의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자들을 심사하여 선발할

〈표 11〉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로드맵

네트 워크	프로그램 운영 주관 단체 도서관			지역 사회 1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지역 단체 등)			지역 사회 2 (시, 구, 동, 면, 리의 특성)		
	사람 책 구성	사람 책 유지	사람 책 확장	소극적 연계	적극적 연계	전문적 연계	소극적 연계	적극적 연계	전문적 연계
방안	공지 및 지원자 접수를 통한 심사·선발	다각적 측면에서의 평가·선발	지원자만이 아닌 지역 사회와 마을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한 섭외	주관 단체 요청 시 필요 인력 지원	상시적으로 사람 책 활동 지원	사람 책 활동을 위해 기관 및 인력을 상시적 지원	주관 단체 요청 시 마을 및 필요 인력 지원	상시적으로 사람 책 활동 지원	사람 책 활동 을 위해 마을 및 인력을 상시적 지원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섭외를 포함하는 단계까지 제시하였다. 또한 ‘사람 책’ 프로그램의 운영 현황을 반영하여, 도서관이 주관하는 ‘사람 책’ 프로그램이 운영될 곳을 지역 사회 1, 지역 사회 2로 구분지어, 전문적으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의 로드맵은 지역 사회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는 기관(공동체)들이 사람 책 활동을 구성 및 유지하고 나아가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단계별 세부 방안이다. 우선 네트워크에는 사람 책 활동을 주관하는 도서관과 지역 사회(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지역 단체 등), 그리고 마을 공동체(시, 구, 동, 면, 리)를 포함시켰다. 이어서 단계는 주관 단체의 경우 구성, 유지, 확장의 3단계, 지역 사회 및 마을 공동체는 소극적 연계, 적극적 연계, 전문적 연계의 3단계로 설정을 하였다.

사람 책의 구성은 모집 공고를 통해 지원자들의 접수를 받은 뒤 심사 과정을 거쳐 선발을 하는 단계까지를 말한다. 사람 책 유지는 다각적 측면에서의 평가 과정을 거치고 최종 선발을 거쳐 해가 바뀌어도 장서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는 사람 책들을 보유하는 것이다. 나아가 사람 책 확장은 지역 사회 및 마을

공동체와의 연계를 통해 직접 섭외를 하거나 추천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만약 학교도서관이나 대학도서관이 사람 책 구성과 유지 및 확장에 어려움이 있다면, 관내 공공도서관의 지원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역 사회의 범위는 그 지역 내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관, 공기업, 사기업, 지역 단체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소극적 연계 방안은 사람 책 활동을 주관하는 도서관에서 요청이 있을 때에만 인력 자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반면 적극적 연계는 도서관과 협약을 맺는 등의 관계 형성을 통해 상시적으로 사람 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적 연계는 지역 사회 내 보유하고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시설을 활용하여 상시적으로 지원을 하는 것이다. 즉, 전문적 연계는 인적·물적 자원 등 갖고 있는 자원을 바탕으로 한 전방위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다.

마을 공동체의 범위는 시, 구, 동, 면, 리 등의 행정 구역 단위를 의미하는 것으로, 각 단위가 갖고 있는 특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즉, 앞서 설명한 지역 사회가 전문인들이 모여서 일하고 있는 기관을 뜻한다면, 마을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그 자

체를 말한다. 마을 공동체인 시, 구, 동, 면, 리는 저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마을공동체는 서로 다른 삶의 이력을 지닌 분들이 거주하므로 이 두 요소를 활용하여 사람 책 활동을 지원한다는 측면이다. 사람 책 활동과 마을 공동체와의 연계 단계 및 세부 방안도 지역 사회와 마찬가지로 관점이다.

4.2 '사람 책' 구성 방안

〈표 12〉에서는 도서관 유형별로 구성할 수 있는 '사람 책'의 범위와 모집 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한 것이다.

도서관 유형이 다르면 사람 책으로 구성할 수 있는 자원과 모집 방법 또한 다르다. 학교 및 대학도서관은 교수자와 교직원, 학부모 및 졸업생, 재학생 및 지역 인사 등 사람 책으로 구성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비슷하다. 반면 공공도서관은 사서 직원을 필두로 이용자 및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작가 등의 인사들이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을 사람 책으로 모집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여러 경로로 홍보를 하거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추천을 받기, 나아가 직접 섭외를 하는 것들이 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모집된 사람 책들은 사람 책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적인 활동 참여가 가능하지

에 대한 검증은 거쳐야 하고, 연수 교육과 평가 단계를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4.3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방안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은 구성된 사람 책들을 목록으로 만들어 배포한 뒤, 만남을 원하는 독자가 있을 때 도서관 내 지정된 장소에서 서로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일 것이다. 하지만 도서관의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안을 더 실행해 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네 가지 방안을 더 제시하고자 한다.

4.3.1 온라인 '사람 책'

현재 국내에서 실행되고 있는 '사람 책' 활동은 오프라인에서 독자와 사람 책이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는 형태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지만, 직장인들처럼 특정 시간동안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대출의 기회가 주어질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웹 사이트나 페이스북, 트위터와 같은 경로를 통해 영상으로 사람 책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다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 책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온라인 사람 책은 미디어 기기 활용이 능숙하고 영상으로 보거나

〈표 12〉 도서관 유형별 사람 책 구성 방안

도서관 유형	학교도서관	대학도서관	공공도서관
사람 책 자원	선생님, 교직원, 학부모, 졸업생, 학생, 지역 인사 등	교수, 교직원, 학부모, 졸업생, 학생, 지역 인사 등	사서 직원, 지역 인사(이용자 및 작가 포함) 등
모집 방안	통신문, 선생님들의 추천, 직접 섭외	홈페이지나 학과 공지 게시판 등을 활용해 모집, 자천 및 학과 추천을 받아 모집, 직접 섭외	자기추천 및 추천, 홈페이지나 게시판 공지를 통해 모집

듣는 활동이 훨씬 익숙한 청소년들에게도 활용이 편리한 매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사람 책들 중 열 사람의 이야기는 페이스 북(<https://www.facebook.com/kgedu1>)을 통해 서비스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도서관에서도 ‘사람 책’들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제작해 보존하면서 온라인상에서 서비스를 원활히 해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온라인 사람 책은 즉각적인 상호작용이 어렵기 때문에 독자 중 궁금증이 있거나 만남에 대한 소감이 있을 때면 그 내용을 게시판에 올리고 그것을 확인한 사람 책이 답변을 해주는 방법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4.3.2 선배 및 또래 ‘사람 책’

대학교나 초·중·고등학교에는 선배와 후배, 그리고 또래라는 개념으로 사람 사이를 구분한다. 이때 선배는 단순히 후배보다 먼저 들어온 사람을 넘어 보다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 따라서 선배는 후배들이 갖고 있는 궁금증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대학교나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학교 내에 있거나 이미 졸업한 선배 사람 책을 활용한 활동을 할 수 있다. 더불어 또래 중에도 특정 분야에 대한 전문성(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을 사람 책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4.3.3 세대 연결 ‘사람 책’

마을 공동체와 지역 사회, 그리고 (대)학교의 학생들과 공공도서관이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마을 공동체에서는 어르신이, 지역 사회에서는 중년의 직업인이, 그리고 학교에서는

학생이 참여해 공공도서관에서 만나 서로의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다. 만약 이 방안이 실행된다면 대화의 장이 부족한 어르신에게는 삶의 역사를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직업인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과 그에 필요한 전문성을, 학생들은 생활에서의 어려움 혹은 현 세대가 갖고 있는 고민 등에 대한 소통을, 공공도서관은 이들 모두가 만나서 소통할 수 있는 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3.4 월별 ‘사람 책’

이 방안은 공공도서관에서 사람 책을 장서로서 다수 보유하고 있을 경우 주체적으로 활동을 기획 및 추진할 수 있을 때 가능하다. 식당에서의 ‘오늘의 메뉴’나 커피숍의 ‘오늘의 커피’와 마찬가지로 사서가 추천하는 사람 책을 독자들은 선택을 하거나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방식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럼에도 이 방식이 유용한 것은 특정한 사람 책을 지정해두고 있지 않은 독자들에게, 혹은 공공도서관과 사서가 이 사람 책을 특별히 추천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측면에서 독자들은 신뢰감을 바탕으로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월별 사람 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람 책들의 주제에 따라 열두 달과 연계를 지어 매월 해당되는 사람 책을 추천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고 해서 매월 사람 책이 한 명일 필요는 없으며, 일례로 가족의 달인 5월에는 주제가 ‘가족’과 관련이 있는 사람 책을 여러 명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4.4 ‘사람 책’ 프로그램 효과 측정 방안

도서관에서 계획 및 운영되는 모든 프로그램

은 적절한 효과 측정을 통해 유지 및 종료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도서관의 사서들이 실시 및 종합해야 하는 ‘사람 책’ 자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독자들의 평가를 통한 효과 측정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표 13〉 참조).

사람 책을 평가하기 위한 양식으로, 그 내용에는 ‘기초 점수’와 ‘교육 연수가 있을 때 몇 회나 참여를 했는가’, ‘사람 책 프로그램에 몇 회나 참여를 했는가’, ‘사람 책과 만난 독자들은 어떤 평가를 내렸는가’가 포함되어 있다. 각 항목에는 각각의 배점이 있어 총점 100점 중 70

점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 다음 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지 못한다는 등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 평가 방법에 대해서는 ‘사람 책’들에게도 미리 공지하여 프로그램에 열심히 참여하는 동기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표 14〉는 독자들이 작성해야 하는 평가표 양식으로, 〈그림 1〉과 〈그림 2〉의 사후 활동지 내용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독자들의 평가표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독자들에게 의무적으로 작성하게 해서 취합 및 분석한 뒤, 그 결과는 향후 ‘사람 책’을 평가할 때 반영할 필요가 있다.

〈표 13〉 ‘사람 책’ 평가표

연번	성명	기초 심사 (20점)	연수 참석 (10점)	활동 참여 (20점)	독자 평가 (50점)	총점 (100점)
1						
2						
3						
4						

〈표 14〉 독자들의 평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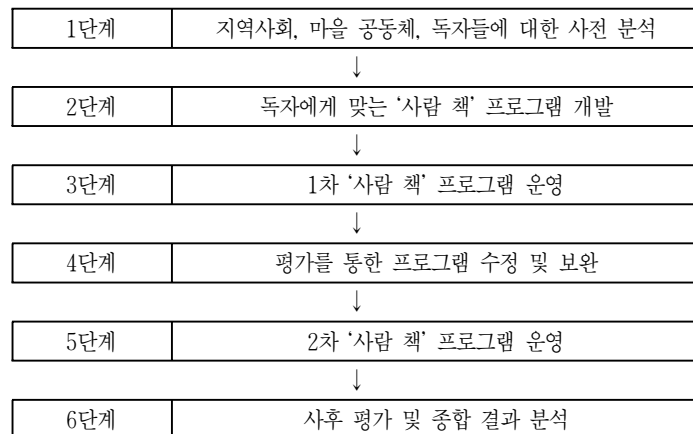
‘사람 책’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사람 책과의 만남이 어떠셨나요? 내가 느낀 소감을 솔직하게 정리해 주세요.
1) 내가 만난 사람 책: 2) 사람 책과의 만남에 대한 만족도는 몇 점입니까? (5점 만점 가운데 하나만 선택) ① 1점, ② 2점, ③ 3점, ④ 4점, ⑤ 5점 3) ‘사람 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도움 받은 점은 무엇입니까? 4) ‘사람 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5) 다음에 만나보고 싶은 사람 책은 누구입니까? (사람 책을 자세히 모른다면 주제나 분야를 적어도 됩니다.)

독자들의 평가표(소감문)에는 총 5개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그 중 1번은 내가 만난 사람책의 이름을 적도록 해 향후 확인을 하기 위한 부분, 더불어 5번 또한 차후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역시 평가를 위한 문항은 아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평가 문항은 2번부터 4번까지라고 할 수 있는데, 2번은 5점 척도로 구성을 하여 객관적 측면에서 정량 평가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의도이며, 3번과 4번은 주관적 측면에서 질적 분석을 행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를 통해 그 결과를 반영하고자 하는 측에서는 보다 자세하면서도 많은 문항을 원할 수도 있지만, 만남을 끝낸 독자의 입장에서는 너무 오랜 시간 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 부담일 수 있다. 따라서 문항은 5개 정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4.5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단계 정립

‘사람 책’ 프로그램의 운영 단계를 실행 연구의 단계별 절차를 응용해 도식화한 것은 <그림

3>과 같다.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1단계는 학교 및 지역사회, 마을 공동체 등 참여할 독자들에게 대한 사전 분석 작업이다. 사전 분석 단계는 이후 단계의 초석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행될 필요가 있다. 이어서 분석된 내용을 바탕으로 사람 책들이 만날 독자들에게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은 2단계에 포함된다. 프로그램은 각 사람 책들마다의 특성이 반영된 내용이며, 동시에 독자들이 사람 책을 선택할 이유이기도 하다. 따라서 사람 책들은 독자들에게 꿈과 희망, 나아가 지혜와 감동을 줄 수 있는 적정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사람 책들마다 독자와 만날 프로그램 내용이 만들어지면 운영 단계에 접어든다. 어떤 형태로든 운영이 끝나면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수정 및 보완 사항이 도출되면 반영을 통해 더 나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4단계를 통해 수정 및 보완이 된 내용은 5단계의 2차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어지고, 최종 6단계에 이르면 전체 활동에 대한 평가 작업과 결과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3>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단계의 도식화

5. 결론 및 제언

사람들은 이야기를 좋아한다. 따라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이야기들을 듣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 이런 특성은 다른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기, 책을 읽기,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기, 노래를 듣기 등의 활동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도서관이야말로 사람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그 활동들을 스마트 폰이나 PC를 통해 해결하고, 반면 도서관의 이용자는 감소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들이 적정 프로그램에 대한 기획이나 홍보에 대한 새롭고 적극적인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의 반증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진입하면서 사람들은 생존하기 위해 다시 융합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런 시대적 흐름을 이용해 도서관이 개인의 생존에 최적화된 융합을 돕는 곳으로 거듭날 수만 있다면, 더욱 강력한 인공지능이 출현한다고 해도 도서관과 사서들은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운영되었던 '사람 책' 프로그램의 사례를 분석하여, 도서관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먼저 이론적 측면에서 사람 책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선행 연구 자료들을 찾아 고찰하였다. 이어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 동안 경기도교육청 주관으로 운영된 '사람 책'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사람 책 구성 현황,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 현황, '사람 책' 프로그램 효과를 정리 및 분석하였다. 또한 각 학교에서 '사람 책' 프로그램 운영을 담당한 교사들의 심층 인터뷰 결과와 독자로 참여한 학생들의 소감문(사후 활동지)을 분석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나아가 이상과 같이 정리 및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도서관에서 '사람 책' 프로그램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방안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로드맵은 기업·국가·국제 사회 등에서 어떤 일을 계획하거나 추진할 때 사용하며, 앞으로의 계획이나 전략 등이 담긴 구상도·청사진 등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람 책'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로드맵을 만들어 제시하였다.

둘째, 도서관 유형별로 구성할 수 있는 사람 책의 범위와 모집 방안을 정리해 제시하였다.

셋째, 온라인 사람 책, 선배 및 또래 사람 책, 세대 연결 사람 책, 월별 사람 책 등, 일반적으로 목록을 구성한 뒤 만남을 원하는 독자들이 있을 때 연결을 지어주는 형태 이외에, 도서관의 유형이나 여건에 따라 더 실행해 볼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넷째, '사람 책' 프로그램의 효과 측정 방안으로 도서관의 사서들이 실시 및 종합해야 하는 사람 책 자체에 대한 평가, 그리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독자들의 평가를 통한 효과 측정 방안을 평가표 양식과 함께 제시하였다.

다섯째, '사람 책' 프로그램의 운영 단계를 실행 연구의 단계별 절차를 응용해 도식화하여 총 6단계로 제시하였다.

참 고 문 헌

- 김민영, 황인혜. 2015. 공공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8): 139-142.
- 남효진. 2017. 『통합독서를 위한 리빙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독서교육전공.
- 박나원, 오동근. 2015. 대구광역시 공공도서관의 휴먼라이브러리 프로그램 운영현황 및 운영방식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 하계 학술발표회』, 2015(5): 183-191.
- 이재형. 2016. 리빙 라이브러리의 비판적 검토와 독서교육적 함의. 『동남어문논집』, 41: 69-88.
- 임성관. 2017. 사람 책 참여자의 체험 현상 분석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8(3): 153-176.
- 임효창. 2017. 공공기관의 지식공유 사례 연구: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휴먼라이브러리와 위키북. 『경영컨설팅연구』, 1(1): 283-290.
- 조미아, 임성관, 민경애. 2017. 『사람 책을 활용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방안』. 수원: 경기도교육청.
- 조찬식. 2014. 휴먼라이브러리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5(3): 9-28.
- 하락중. 2017. 『사람 책 도서관 참여자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 거제 YMCA 사람 책 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창업학과.
- 허정숙. 2017. 사람 책을 빌려드립니다. 『월간 샘터』, 2017(7): 48-49.
- 황희선. 2014. 『휴먼 라이브러리 기획 과정 연구: 휴먼 라이브러리의 정체성과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평생교육전공.
- Frey, Carl Benedikt and Michael A. Osborne. 2013. *The Future of Employment: How Susceptible are Jobs to Computerisation?*. UK: Oxford Martin Programme on Technology and Employment.
- Morgan, David L. and Alice U. Scannell. 1998. *Planning Focus Groups*. New York: SAGE.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Cho, Chan-Sik. 2014. "A Study on the Human Library: The Case of Human Library in Seongbuk-Gu, Seoul."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25(3): 9-28.
- Cho, Mi-Ah, Seog-Gwan Lim, and Kyeong-Ae Min. 2017.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Regional Network by Human Book*. Suwon: G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 Ha, Lak-Jong. 2017. *A Study on Social Capital Formation of Human Library Participants: Focused on the Case of Geoje YMCA Human Library*. M.A. thesis, Department of Business & Entrepreneurship Graduate School Gyeongnam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Heo, Jeong-Sook. 2017. "Lend Human Book." *Monthly Samtoh*, 2017(7): 48-49.
- Kim, Min-Young and In-Hye Hwang. 2015. "A Study on the Human Library of the Public Libraries: The Case of Human Library In Nowon-Gu, Seoul." *Conference of Korea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2015(8): 139-142.
- Lee, Jae-Hyoung. 2016. "A Critical Review of the Living Library and Implications of Reading Education." *Journal of the Dongnam Language and Literature*, 41: 69-88.
- Lim, Hyo-Chang. 2017. "A Case Study of Knowledge Sharing of Public Organization: Focused on the Human Library and Wikibooks in KAMCO."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Management Consulting*, 1(1): 283-290.
- Lim, Seong-Gwan. 2017. "A Study or Analysis of the Phenomenal Experiences with Human Book: Focusing on the Human Book Program at the Geonggi Provincial Office of Education."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8(3): 153-176.
- Nam, Hyo-Jin. 2017. *A Study on the Living Library Programs for the Integrated Reading*. M.A. thesis, Majoring in Readi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Dong-A University.
- Park, Na-Won and Dong-Geun Oh. 2015.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Operations of the Human Library Program of Public Libraries in Daegu Metropolitan City." *Conference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2015(5): 183-191.
- Whang, Hee-Seon. 2014. *A Study on Planning Human Library: Focusing on Identity and Research Methodology of Human Library*. M.A. thesis, Majoring in Lifelong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Gong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